

한옥건축 신축시 현대적 재료 사용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 개정

익산시가 고도보존육성지구의 한옥 건축 양식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식 동기와의 한옥시스템 창호, 황토블록, 전벽돌 등 현대적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익산시는 금마면 소재 역사문화재과 사무실에서 제4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회를 개최해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심의위는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을 이론적 규정보다 현대의 실생활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한옥건축양식의 활성화

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심의위는 한옥건축양식과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사업을 고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 재료만을 이용한 기존 방식과 달리 한옥건축양식 신축 시 현대적인 재료(한식 동기, 한옥시스템 창호, 황토블록, 전벽돌 등)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

했다. 또 색채와 재질은 전통방식을 따르도록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의 규정완화로 보다 현실성 있게 고도지구를 만들어 갈 계획으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백제왕도로서 고도의 이미지를 민관이 함께 조성해 고도지구를 더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Green Eco City' 조성... 주민 정주여건 개선

익산시가 'Green Eco City' (그린 에코 시티) 조성을 통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 숲 조성을 통해 도시 생활 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500만 그루의 나무를 지역 곳곳에 식재해 대기 환경 개선에 나선다.

500만 그루 나무 식재 등 이를 위해 유휴토지와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도심 속 숲을 조성한다. 또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중앙분리대 정비 등을 통해 푸른 네트워크 조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시는 또 임야 조림사업에도 주력한다. 경제수 조림과 산림재해방지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의 마련이 그 복안이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명상 숲 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자연적인 교육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익산지역의 공원과 녹지 125개소에 수목을 식재하는 도시공원 조성에 주력한다. 특히 출생, 입학, 취업, 결혼 등을 기념하는 '시민 내 나무 갖기 운동'

을 전개해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기업체 등에도 나무식재를 독려해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 푸른 익산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기의 질 향상과 힐링 공간 마련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중앙동·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

군산시가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동과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단을 올린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까지 재개발사업에 수협창고 등 5대 도시재생 거점을 개발하고 27개의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레저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5대 거점인 수협창고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동화석산지 개발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주민과 인근 산단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사업대상 부지 협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앙동,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소룡동, 해신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왕궁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 익산시는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광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관광 앵커시설 '왕궁 포레스트 어드벤처'를 조성하고 시티투어 확대 운영한다. 또 융복합형 산업관광으로 알려진 MICE 산업 집중 육성 등의 관광정책을 펼쳐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건설한다. 시는 관광앵커시설인 '왕궁 포레스트 어드벤처'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

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을 마련한다. 시는 향후 5년간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포레스트 어드벤처와 질러인, 알파인레일 등을 조성해 이곳을 체험형 관광앵커시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순환형 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한다. 관광객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원광대학교 정자역을 추가하고 버스 또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버스로 교체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표적인 융복합형 산업관광으로 알려진 MICE 산업 육성도 집중 지원된다.

시는 실질적인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 MICE 행사 유치 지원을 위해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전 부서서 전국 단위 행사 유치를 위해 주력한다. 시는 이미 오는 17일 전라권 지방세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가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을 유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순수 관광객 트렌드가 기존 단체 패키지에서 가족형 개별 관광객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관광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농업인 경영안정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

군산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림어업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2%의 저금리(용자)로 지원해주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수시로 신청 받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귀농인 등이 해당되며, 농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가공설비 사업,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 사

업, 농어촌 귀농 사업 등에 총 사업비의 70%까지 용자가 가능하다.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의 경우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용자 받을 수 있으며, 수매 및 저장사업과 가공·생산설비사업은 개인은 5억원, 법인은 20억원까지 용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과 수매·저장 사업은 2년 일시상환이며, 가공·생산설비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최종 선정된 '그날을 기억하다'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과 시비 7천5백만원 등 총 2억 2,500만원을 투입해 구암역사공원에 함일항쟁사 시설을 확충한강이남 최초 만세운동인 3.5만세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5만세운동을 주제로 담장과 옹벽에 타일 벽화와 포토존을 설치하고, 담쟁이와 태극기를 활용한 생태태널을 설치하며 만세운동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를 테마로 한 태극기·무궁화 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그간 구암역사 성역화 사업으로 건립한 3.1운동 기념관과 기념탑 등 각종 조형물, 3.5만세운동길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탈의 도시'가 아닌 '진포대첩과 같은 함일항쟁의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기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안동 철길마을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비를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250세대 미만인 경우 85㎡) 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도 중점 추진사업, 당 지원규모, 우선순위 대상단지 등은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334개 단지에 6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단지별 지원금 상한 조정 여부에 따라 55~65개 단지로 사업을 확대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력보수가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도상미관 향상은 시설보수 관리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372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